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

- 지혜의바다도서관을 중심으로 -

Place Attachment in Public Libraries Reusing Underutilized Spaces: A Case Study on Sea of Wisdom Libraries

홍 소 람 (Soram Hong)*
박 성 우 (Seongwoo Park)**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이 장소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론적 프레임은 박성우(2020)가 제시한 유휴공간 재활용의 이점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집합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장소애착을 도입하였다. 경상남도 지혜의바다도서관 이용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애착은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성을 넘어 유휴공간의 독특한 구성에 대한 이용자 경험의 다양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유휴공간으로 재활용되었다는 인지가 높을수록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독서 및 대출)에 대한 장소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은 생활공간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할 때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루틴화시킬 수 있어서, 쉼과 휴식 등 보편적 기능에 대한 대체불가능성을 강화하여 장소애착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xamine how public libraries adaptively reused from underutilized space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place-based collective identity. Built upo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lineated by Park (2020) regarding the advantages of repurposing underutilized spaces, this study adopts place attachment as an operational concept to measure place-based collective identit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83 users of the Gyeongsangnam-do "Sea of Wisdom" libraries, and the gathered data were rigorously analyzed. The major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place attachmen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diversity of user experiences regarding the unique configuration of the underutilized space, transcending the inherent functionalities of standard public libraries. Second, a heightened perception of the public library as a repurposed underutilized space significantly heightened place dependence on the library's traditional functions, such as reading and lending services. Third, when the distance from daily living spaces was minimized, these repurposed libraries routinized community access, which reinforced the irreplaceability of universal functions like rest and relaxation, thereby cultivating place attachment.

키워드: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 사회적 앵커,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Public Library Reusing Underutilized Spaces, Social Anchor,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원 및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
(gardenofstone@naver.com / ISNI 0000 0004 9178 2852)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ulturepark@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22 5864)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6월 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375-399,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375>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연구의 필요성

공간은 시간과 함께 인간 존재의 전제로서 중요한 개념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간 생존의 모태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기치는 인간의 경제적 생존권 만큼이나 사회적·문화적 생존권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특히, 근대적인 개발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반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도서관은 문화적 중심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 쓰이지 않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교각 아래를 도서관으로 만든 가재울도서관, 폐교를 활용해 공공도서관으로 만든 지혜의바다도서관, 폐공장을 활용한 부산의 F1963 등이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면 건축의 구조가 도서관을 상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에 도서관에 기대되지 않았던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 복합화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기존에 이미 정주민들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전시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나아가 유휴공간으로 놔두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들임으로써 갖는 치안 회복도 피할 수 있다(노영희, 노지윤, 2018; 박성우, 2020).

이 점에서 유휴공간을 재활용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

로 이루어졌다. 병원 등의 폐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건축계획이나 사례조사를 토대로 한 특성 분석(단성훈, 최유중, 2017; 박효란, 임호균, 2022; 양재영, 김동훈, 2016), 최신의 공공도서관 건축 트렌드 중 하나로서의 사례제시(Lehmann, 2024), 폐교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사회경제적 가능성과 인식조사(노영희, 노지윤, 2018; 2019a; 2019b), 나아가 특정한 건물 단위에서 공공도서관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계획 전체에서 갖는 의의를 발굴하기 위한 사례분석(박성우, 2020; Hwang & Oh, 2025; Lee, 2025; Skot-Hansen et al., 2013) 등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갖는 기대효과와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실제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유휴공간 재활용의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이 주는 이점을 주로 제시하는데, 반대로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약점을 유휴공간 재활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관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성우(2020)는 사회적 앵커로서 공공도서관이 개방성으로 인해 소속감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이 미약한데, 이를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유휴공간의 집합적 정체성을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박성우(2020)의 연구 또한 일부 사례 연구에 그쳐, 실제로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유휴공간을 도서관

으로 재활용할 때의 유용성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건축의 관점에서도 유용성과 장점이 검증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성우(2020)가 제시한, 공공도서관 관점에서 유휴공간 재활용의 이점에 근거하여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앵커로서의 기능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개념을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한다. 공공도서관이 만들어내는 지역 기반의 집합적 정체성은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박성우, 2020; 이정호, 2012). 장소애착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갖는 유대를 일컬으며, 장소에 대하여 가까이 있으면 즐겁고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감정적 상호작용 상태를 말한다(Hernández et al., 2020).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감정적 연대가 사회적 앵커로서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공동체 회복과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장소애착은 집합적 정체성의 측정을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적합하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소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도 공공도서관이 역사·문화·공동체성을 재형성함으로써 지역성을 재규명하는 역할을 검토하거나(Brunvand, 2020), 심층인터뷰를 통해 장소감의 형성과정을 추적(Loh & Hamarian, 2026)하는 등의 연구를 주로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소애착을 구조방정식의 매개변수로 활용해왔지만(이정호, 2012; Huang et al., 2024),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특수성과 역할에 집중된 측정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이 장소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다양한 방문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는가? 둘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에 대한 과거적 경험과 현재적 경험이 장소애착을 증가시키는가?

2. 이론적 개념

2.1 공공도서관의 유휴공간 재활용 전략

근대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은 산업혁명의 배경 아래 출현했다. 농업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거대화된 도시 내에서 무질서, 혼란, 위생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주의적 기능에 입각한 구획화와 분절 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전략을 수립하였다. 조감도적 이상주의적 도시계획으로 압축되는 이러한 통제전략은 근대화 및 효율화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발전을 국가 목적의 최우선으로 뒀기에 따라, 인본주의적 삶의 양태는 배제되고 도시는 삶의 터전이 아닌 단지 공간적 수단으로 전략하였다. 그 결과 도시는 공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인 개발과 확산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소성이 상실되었다. 정주환경의 훼손과 공동체의 해체는 정주민들

을 자본주의적 유목민으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파편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김용창, 2011).

이러한 발전 중심의 도시개념에서 나아가 도시를 인본주의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용어이다. 도시재생은 “(전략)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HUG 도시재생지원기구, 2014)”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각적 문제의 원인을 도시발전, 구체적으로는 도시발전이 불러온 사회문화적 공동체 해체로 이해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공간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적 정책으로 요약된다.

유희공간 재활용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 전략 중 하나이다. 유희공간 재활용은 건축계에서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공통적으로 기존에 있던 건축자원을 변형하여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김현주, 이상호, 2011, 105). 유희공간 재활용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확산되기 이전부터도 환경위기와 결부된 건축 분야의 재활용 운동 중 하나였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단위건물 단위에서의 하드웨어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환경적 시설 창출 효율화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근본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목적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는 단위건물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역사성, 장소성, 생활사적 의미를 복원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를 복원해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적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김현주, 이상호, 2011).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유희공간 재활용이 갖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 공공도서관이다(박효란, 임호균, 2022). 이는 공공도서관이 앵커 시설 중에서도 사회적 앵커(social anchor)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정주민들을 모객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앵커 시설(anchor institutions)은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고용창출과 소비창출을 가능케 하여 정주민을 모객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Dragicevic, 2015; Harris & Holley, 2016).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앵커는 단순한 경제적 자본의 유통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정주민으로 하여금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시켜 삶의 정주조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핵심 기관이다(Clopton & Finch, 2011).

공공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면서도 개인적 작업과 사회적 만남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안전한’ 공간이다. 이러한 감각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간에 대한 제도 기반의 신뢰감을 심어주고, 같이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질감에 기반한 일반화된 신뢰를 창출해내어 공공도서관 방문을 촉진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잦은 방문은 다양한 시민집단의 만남을 창출시키며 연결망을 발생시킨다.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신뢰, 호혜성, 연결망이라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두 발생시키는 기관으로 입증된 바

있다(박성우, 2014; Vårheim, 2009).

그러나 사회자본을 축진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개방성은 오히려 집합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집합적 정체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보편적 상위 정체성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인자인 소속감(membership)이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확장된 양상을 일컫는다(박성우, 2020; McMillan & Chavis, 1986).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소명은 특정한 소속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평등과 공유, 개방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앵커로서의 기능의 측면에서 유효하며 실제로 정책적으로 많은 수요를 얻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약하다.

이 점에서 유휴공간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공공도서관이 가진 집합적 정체성 측면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여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모두 수행한다(박성우, 2020; Hwang & Oh, 2025). 유휴공간에 있던 기존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 변화는 이 유휴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가 가진 이중적 속성에 대한 인지와 고찰을 유도함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완화하고, 이렇게 완화된 거리감이 잦은 방문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기능으로 계획되지 않는 유휴공간 건축물을 활용한다면 본래의 공간에 기대되는 바와 다른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서관이 가진 이미지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노영희, 노지

윤, 2018, 98). 이에 따라 병원(단성훈, 최유중, 2017; 양재영, 김동훈, 2016), 공장, 창고, 수도원(Lehmann, 2024)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재활용한 사례들이 보고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학교(노영희, 노지윤, 2018; 2019a; 2019b; 박성우, 2020; 박효란, 임호균, 2022)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폐교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서관 등의 공간복지시설로의 폐교자산을 환원하는 작업은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노영희, 노지윤, 2018; 2019a).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공동체 활력, 연대·협력 플랫폼’의 추진과제 실행계획으로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을 들며, 유휴부지에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며 특히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학교 유휴부지(폐교)의 적극적 활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독서와 개인적 작업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 도서관에 대한 전통적인 요구사항이었다면, 현대 공공도서관 공간은 넓은 층고와 개방적 로비 공간, 공동체 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Hwang & Oh, 2025, 1328). 나아가 메이커스 페이스나 AI 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요구사항도 증가하며 이용자 경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간 구성을 강화하고 있다(Lehmann, 2024).

요약하면, 공공도서관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시설로서 사회적인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는 사람들을 모객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앵커로서의 역

할 수행에 대한 기대로 압축할 수 있다. 사회적 앵커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 관점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유희공간 재활용이다. 유희공간 중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앵커였던 학교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전략은 공공도서관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다변화시키는데 기여하며, 공공도서관이 가진 집합적 정체성 측면에서의 약점을 극복한다.

2.2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

집합적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소속/비소속의 전제를 특정 집단에서 지역단위의 보편성으로 확장해낸 개념으로서, 소속 범위로서의 공간 단위와 밀접하게 관련맺는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모객하는 사회적 앵커로서 기능하며, 사회적 앵커를 경험하며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 점에서 집합적 정체성은 공간을 인간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므로 장소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장소(place)는 물리적 개념인 공간(space)이 인간에게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지리사회학적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화 과정에서 한 장소와 다른 장소가 구분될 때 가지는 장소 고유의 의미화를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하고, 개별 인간의 관점에서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할 때 개별 장소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인식을 장소감(sense of place)라고 한다(이석환, 황기원, 1997, 176-178). 이러한 감정이 장소에 지속적

으로 접근하는 행위동기로 작용할 만큼 강력해지며 지리적으로 귀속된 소속감을 발생시킬 때 이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라고 한다(이석환, 황기원, 1997, 179-180; Hernández et al., 2020).

장소애착의 양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Williams와 Roggenbuck(1989), Williams와 Vaske(2003)의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을 2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장소의 존성(place dependence)으로, 반복적인 방문을 발생시키는 장소의 기능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며 기능적 애착이라고도 한다. 둘째,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그 장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기능을 뛰어넘어 갖게 되는 애착으로 장소의존성보다 장기적인 과정을 걸쳐 형성되며 정서적 애착이라고도 한다.

Loh와 Hamarian(2026)은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사회적 기능 변화에 따라 세대마다의 공공도서관 경험이 다르더라도, 이들이 갖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소감 형성에 공통되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핵심 주제로 기능적 애착(즉, 장소의존성), 공간이 가진 물성(materiality), 루틴을 통한 친숙함을 꼽았다. 특히 루틴을 통한 친숙함은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방문 빈도가 잦을수록 공공도서관이 가진 ‘책으로 가득한’ ‘사서들이 친절함’ 등의 물성이 누적됨으로써 도서관을 친숙하게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누적될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소감이 향수감(nostalgia)과 연결되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서적 애착(즉, 장소정체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호(2012)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 요인, 장소애착, 장소가치지각, 행위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중 잠재변수인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 중 장소의존성의 표준화 계수가 장소정체성의 표준화계수보다 높아, 장소애착 중에서도 장소의존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이용행태가 방문의도와 긴밀하게 연관됨을 시사한다. 장소의존성은 방문한 의도, 즉 장소에 기대하는 기능의 충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홍소람과 박성우(2025)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성이 물리적 환경, 인식과 행동, 의미 형성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서 형성되며, 장소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물리적·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 개념을 제안한다. 서비스스케이프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일컫는데, 물리적 서비스스케이프와 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를 합쳐서 제시했다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서 체감하는 직·간접적 상호작용(같은 공간에서 따로 책을 읽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동질감이 경험의 누적에 따른 장소애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소의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적합성과 장소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적합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스케이프 개념은 장소애착 중에서도 장소의존성을 우선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이 집합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계맺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지역 사회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uang et al.(2024)은 도서관의 아동 놀이학습 공간의 서비스스케이프가 장소애착을 매개하

여 구매의도, 재방문 의도, 도시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서비스스케이프 요인 전체와 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 요인 일부가 장소애착을 매개하여 구매의도, 재방문 의도, 도시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사회적 앵커에 대해 갖는 장소애착이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정 지점에 대한 소속감을 뛰어넘어 그 장소가 소재한 지역애의 소속감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장소애착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시발점이다. 장소애착은 가까운 공간에 대한 일상 루틴 방문을 통해 환경에 대한 물성적 경험이 누적될 때 강화된다. 방문의도를 충족했을 때의 기능적 애착을 장소의존성이라고 하고, 경험의 누적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애착을 장소정체성이라고 한다. 장소의존성은 방문의도의 충족 여부와 관련 맺으므로 공공도서관의 환경적 요인과 긴밀하게 관계맺는데,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도시 정주의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소애착은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이 가진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을 유희공간을 재활용하여 건립했을 때, 집합적 정체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실증하고자 함이다. 유희공간

을 재활용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으로 목적해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새로운 공간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다변화한다는 점, 공공도서관의 개방성이 가진 미약한 집합적 정체성이 기존의 유희공간이 갖고 있던 집합적 정체성에 의해 강화되며 지역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이 연구는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장소애착을 도입하여,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문제1은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관련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유희공간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공간 구성이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이용자 경험을 어떻게 다변화시키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에 기대하는 기능, 즉 방문의도에 따른 장소의존성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2는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따른 것이다. 기존 유희공간에 관련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형성된 장소애착이 현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소애

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반면, 기존 유희공간에 관련되지 않은 현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장소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방문 성인 이용자이며, 그 중에서도 폐교 건물을 토대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방문 성인 이용자이다. 실증연구의 사례로 선별된 연구대상은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노영희, 노지윤, 2018; 박성우, 2020; 박효란, 임호균, 2022)한 기관이면서 폐교 재활용에 관하여 선제적인 기관 중 하나인 지혜의바다도서관의 방문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혜의바다도서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의 폐교 활용 공공도서관 브랜드로,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총 2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17년 인구감소로 인해 구암여자중학교와 통합된 구암중학교의 체육관 건물을 활용하여 지어진 공공도서관

<표 1>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1.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다양한 방문의도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가설1. 방문의도에 따라 장소의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에 대한 과거적 경험과 현재적 경험이 장소애착을 증가시키는가?
가설2. 기존 유희공간과의 과거 경험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기존 유희공간의 인지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기존 유희공간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현재 공공도서관의 경험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공공도서관 소재지의 거주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으로, 폐교 활용 공공시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선제적 사례로 손꼽힌다.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19년 김해 주촌면의 주촌초등학교를 이전하게 되면서 주촌초등학교 본건물을 활용하여 개관하였다.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과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은 공통적으로 높은 층고를 그대로 살린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등 다각도로 이용될 수 있는 변동적 공간을 독서공간과 함께 위치시킴으로써 종전의 공공도

서관 건축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혜의바다도서관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3 조사문항

유희공간 재활용이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에 미친 집합적 공동체 형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문항

항목	문항	출처	
장소의존성 (PD)	[방문의도]를 하기에 이 도서관은 최적의 장소다.* [방문의도]를 꼭 '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나에게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내가 [방문의도]를 다른 곳에서 대신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방문의도]를 하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그 어떤 곳도 이 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을 방문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 도서관은 내가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Chen et al., 2019; Huang et al., 2024; Kyle et al., 2005; Raymond et al., 2010; Williams & Vaske, 2003	
장소정체성 (PI)	이 도서관은 내 일부처럼 느껴진다. 이 도서관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이 도서관은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나는 이 도서관에 깊이 정이 들었다. 이 도서관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이 도서관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이용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이 도서관에는 즐거운 추억이 많다. 나는 이 도서관,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 이 도서관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나는 사회적 인맥을 일부 잃게 될 것이다. 내 지인들 중 상당수도 비슷한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을 더 선호한다. 이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이곳이 그리워진다. 나는 이 도서관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이 도서관에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기존 유희공간 경험	공공도서관 이전의 유희공간 인지 여부 공공도서관 이전의 유희공간과 관계 여부(+관계 유형)		박성우, 2020; Hwang & Oh, 2025
현재 공공도서관 경험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 거주지(도서관 소재지와의 관계)		Loh & Hamarian, 2026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령 성별		-

* 도서관 방문의도(독서 및 대출, 쉬거나 시간보내기, 강의와 프로그램, 공부와 작업, 가족 또는 아이와 시간보내기) 별로 질의

장소에착 문항은 양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며(Hernández et al., 2020) 공공도서관의 장소에착에 관련한 연구에서 사용한 기능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측정에 유용한 Williams와 Vaske(2003)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더불어 해당 연구를 원용하여 발전시킨 Kyle et al.(2005), Raymond et al.(2010), Chen et al.(2019),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공공도서관에 적용시킨 Huang et al.(2024)의 연구도 함께 활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장소의 관계 강도를 묻는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가 요인으로 추가되기도 하였고(Chen et al., 2019; Kyle et al., 2005) 교외 시골 지방 거주자의 장소에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인 자연환경 유대(nature bonding)와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강도인 친구 유대(friend bonding)가 추가되기도 하였다(Raymond et al., 2010). 이는 장소정체성이 장기간에 걸쳐 장소의 물리적·행태적·심리적 요인을 복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며, 방문목적 달성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스케이프 및 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와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박성우, 2020; Hwang & Oh, 2025).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별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소정체성에 포함하여 측정하기로 하였다.

장소의존성 중 방문의도에 따른 애착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4개의 질문(최적의 장소, 의미성, 대체불가능성, 우선 선호도)의 경우 공공도서관 방문의도에 대한 선행연구(김소연, 임호균, 2025; 최유진, 차미경, 2019; Aabø & Audunson, 2012)를 바탕으로 선정한 5개 유형

의 방문의도별로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표 2>에는 장소의존성 문항이 7개이지만, 실제 설문에서는 23개의 질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장소에착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집단변수로서 기존 유희공간 경험 2문항, 현재 공공도서관 경험 2문항을 질문하였다. 기존 유희공간 경험은 기존의 유희공간 경험 여부를 묻기 위한 인지 여부와 관계 여부 등 2가지로 나누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유희공간의 장소에착이 현재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소에착과 결합하여 환원되기 때문에, 유희공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질의하였다. 현재 공공도서관 경험은 장소감 형성 요인으로 거리감에 따른 도서관 방문의 루틴화와 이에 따른 방문 증가를 뽑은 Loh와 Hamarian(2026)의 연구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방문 빈도와 거주지를 뽑았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연령과 성별을 질의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각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여 현장 사서의 협조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26년 5월 2일(토)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따른 사례품을 준비하여 온라인 설문을 위한 QR코드 포함 홍보지와 오프라인용 인쇄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오프라인용 인쇄 설문지는 5월 3일(일) 회수하였다.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26년 5월 3일(일) 방문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 회수의 문제로 QR코드를 포함한 홍보지를 카운터에 비치하여 홍보를 요청하고 설문 사례품과 함께 전달하였다. 온라인 설

문은 5월 10일(일)까지 수집받았다. 그 결과 최종적인 회수 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의 오프라인 부수 중, 1페이지가 전부 누락된 불성실 응답 1개를 제외하고 모든 부수가 응답에 채택되었다. 응답

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 범주형 조사항목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183부 중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이 92부(50.3%),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이 91부(49.7%)에 해당했다. 해당 도서관이 구암중학교 또는

<표 3> 설문지 회수부수 및 분석대상 부수 산출

대상		회수부수	제외부수	분석대상부수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	오프라인	18	1	91
	온라인	74	0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	온라인	92	0	92
총계		184	1	183

<표 4> 기술통계: 범주형 조사항목(집단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항목		빈도		퍼센트		총계(퍼센트)	
지역	마산 지혜의바다도서관	91		49.7		183(100)	
	김해 지혜의바다도서관	92		50.3			
유희공간 재활용 건축 인지여부	알고 있었다	138		75.4		183(100)	
	몰랐다	45		24.6			
이전 유희공간과의 관계여부	관계있다	학생	10	18	5.5	9.8	183(100)
		가족	6		3.3		
		교직원	1		0.5		
		기타	1		0.5		
	관계없다	165		90.2			
방문빈도	1주일에 1회 이상	1주일에 2~3회 이상	23	65	12.6	35.5	183(100)
		1주일에 1회 이상	42		23		
	1달에 1~2회 이상		85		46.4		
	1년에 1~2회 이상	2~3달에 1회 이상	20	33	10.9	18.0	
1년에 1~2회 이상		13	7.1				
도서관 소재지와와의 관계	관외(기초단체 외) 거주		50		27.3		183(100)
	관내(기초단체 내) 거주		105		57.4		
	소재지(도서관 소재 읍면동) 거주		28		15.3		
연령	20~30대	20대	10	52	5.5	28.4	183(100)
		30대	42		23		
	40대		103		56.3		
	50대 이상	50대	22	28	12	15.3	
60대		6	3.3				
성별	남성		45		24.6		183(100)
	여성		138		75.4		

주초등학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인지에 대한 인지 138명(75.4%)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45명(24.6%)이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전 학교의 학생이었거나, 가족이었거나, 교직원 등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명(9.8%)이었고,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65명(90.2%)이었다. 도서관 방문 빈도는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자가 65명(35.5%), 1달에 1~2회 이상 방문자가 85명(46.4%), 1년에 1~2회 이상 방문자가 33명(18.0%)이었다. 도서관 소재지와의 관계에서는 소재지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관외(마산회원구 외부, 김해시 외부) 거주자

가 50명(27.3%), 관내(마산회원구 내부, 김해시 내부) 거주자가 105명(57.4%), 도서관 소재 읍면동(마산 구암1동·구암2동, 김해 주촌면) 거주자는 28명(15.3%)에 해당했다. 연령대는 만 20~30대(19세~39세)가 52명(28.4%), 40대(40세~49세)가 103명(56.3%), 50대 이상(50세~)이 28명(15.3%)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5명(24.6%), 여성이 138명(75.4%) 응답했다.

장소에착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술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기술통계: 연속형 조사항목(장소에착)

	문항	N	평균	표준 편차
PD1-1	독서를 하거나 책을 빌리기에 이 도서관은 최적의 장소다.	183	4.39	0.670
PD1-2	꼭 '이 도서관'에서 독서나 대출을 하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183	3.96	0.937
PD1-3	내가 다른 곳에서 대신 독서나 대출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183	2.91	1.230
PD1-4	독서나 대출을 하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183	4.13	0.822
PD2-1	쉬거나 시간을 보내기에 이 도서관은 최적의 장소다.	183	4.34	0.677
PD2-2	꼭 '이 도서관'에서 쉬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183	4.00	0.883
PD2-3	내가 다른 곳에서 대신 쉬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183	2.98	1.231
PD2-4	쉬거나 시간 보내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183	4.16	0.723
PD3-1	강의나 프로그램을 듣기에 이 도서관은 최적의 장소다.	183	3.99	0.858
PD3-2	강의나 프로그램을 꼭 '이 도서관'에서 듣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183	3.65	1.063
PD3-3	내가 강의나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대신 듣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183	2.93	1.243
PD3-4	강의나 프로그램을 듣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183	3.86	0.939
PD4-1	이 도서관은 공부나 작업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183	3.96	0.867
PD4-2	꼭 '이 도서관'에서 공부나 작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183	3.74	1.057
PD4-3	내가 다른 곳에서 대신 공부나 작업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183	2.90	1.284
PD4-4	공부나 작업을 하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183	3.87	0.989
PD5-1	이 도서관은 가족 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다.	183	4.35	0.702
PD5-2	가족 또는 아이와 꼭 '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183	4.15	0.855
PD5-3	내가 다른 곳에서 대신 가족 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183	3.06	1.306
PD5-4	가족 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	183	4.17	0.811
PD6	그 어떤 곳도 이 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다.	183	3.75	1.048
PD7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을 방문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183	4.13	0.826

	문항	N	평균	표준 편차
PD8	이 도서관은 내가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183	4.14	0.769
PI1	이 도서관은 내 일부처럼 느껴진다.	183	3.96	0.882
PI2	이 도서관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183	4.21	0.758
PI3	이 도서관은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183	3.79	0.944
PI4	나는 이 도서관에 깊이 정이 들었다.	183	4.26	0.803
PI5	이 도서관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183	4.19	0.797
PI6	나는 이 도서관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이용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183	4.43	0.587
PI7	이 도서관에는 즐거운 추억이 많다.	183	4.34	0.722
PI8	나는 이 도서관,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	183	3.94	0.909
PI9	이 도서관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나는 사회적 인맥을 일부 잃게 될 것이다.	183	3.14	1.343
PI10	내 지인들 중 상당수도 비슷한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을 더 선호한다.	183	3.96	0.942
PI11	이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이곳이 그리워진다.	183	4.01	0.911
PI12	나는 이 도서관에 소속감을 느낀다.	183	3.86	1.012
PI13	나는 이 도서관에 정서적 애착을 느낀다.	183	4.08	0.925

PD1부터 PD5는 방문목적에 따른 질문을 반복질의한 것이고, PD6, PD7, PD8은 종합적인 장소의존도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 단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PD1-1로, 장소의존성에서 독서와 대출 방문의도에 있어서의 만족도 문항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PD1-3으로, 장소의존성에서 독서와 대출 방문의도에 있어서의 대체불가능성 문항이었다. 같은 방문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와 대체불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평균 정도가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장소의존성이 방문의도보다 의존 강도에 의해 나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포함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Jamovi 2.6.44와 SPSS 22를 사용하였다. 가설1의 검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가설2와 가설3의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맨 휘트니(Mann-Whitney)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문제1: 복합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방문의도 간 장소의존성 차이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으로서, 목적했던 기능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공간적 기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다양한 방문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장소의존성 문항 중 방문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 문항을 선행연구(김소연, 임호균, 2025; 최유진, 차미경, 2019; Aabø & Audunson, 2012)에 제시된 방문의도(독서 및 대출, 쉬거나 시간 보내기, 강의나 프로그램, 공부나 작업, 가족이나 아이와 시간보내기)에 따라 반복 질의하였다. 각 방문의도별 장소의존성을 요인으로 나누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Jamovi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

출 모델로는 최대우도법을, 사회과학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사용되는 사각회전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을 채택하였다. 추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추출을 방지하기 위

한 병렬분석을 기초하였고, 사각회전 방식 채택에 따라 0.40를 기준으로 요인 적재량을 선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PD-sat	PD-sub	PI	공통성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PD1-4	0.608	0.031	0.092	0.476	0.940	4.05	0.654
PD2-1	0.663	-0.041	0.127	0.543			
PD2-4	0.773	-0.029	0.069	0.653			
PD3-1	0.659	0.243	-0.033	0.612			
PD3-4	0.674	0.292	-0.092	0.631			
PD4-1	0.761	0.076	-0.111	0.531			
PD4-2	0.527	0.243	0.147	0.617			
PD4-4	0.723	0.148	-0.115	0.534			
PD5-1	0.679	-0.176	0.098	0.463			
PD5-2	0.473	-0.034	0.328	0.519			
PD5-4	0.653	-0.043	0.140	0.541			
PD6	0.588	0.242	0.109	0.662			
PD7	0.791	-0.049	0.063	0.660			
PD8	0.736	-0.050	0.141	0.664			
PD1-3	-0.046	0.768	0.136	0.654	0.931	3.07	1.059
PD2-3	0.014	0.850	0.040	0.764			
PD3-2	0.319	0.414	0.215	0.613			
PD3-3	0.146	0.827	-0.039	0.788			
PD4-3	0.048	0.843	0.044	0.787			
PD5-3	0.042	0.786	0.084	0.717			
PI1	-0.014	-0.006	0.801	0.623	0.946	4.08	0.680
PI2	0.042	-0.073	0.811	0.660			
PI3	-0.074	0.104	0.750	0.558			
PI4	0.123	-0.096	0.758	0.655			
PI5	0.121	-0.018	0.760	0.704			
PI6	0.300	-0.231	0.568	0.524			
PI7	0.166	-0.098	0.615	0.490			
PI8	-0.069	0.193	0.746	0.633			
PI11	0.173	0.066	0.677	0.701			
PI12	0.002	0.181	0.756	0.719			
PI13	-0.099	0.107	0.859	0.708			
PD1-2	0.213	0.222	0.443	0.546			
KMO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197.547
					자유도(p)		496(0.000***)

* $p < 0.05$, ** $p < 0.01$, *** $p < 0.001$

요인분석 결과 문항 4개(PD1-1, PD2-2, PI9, PI10)가 탈락하였다. PD1-1은 고유분산이 0.6 이상으로 문항에 대한 공통성이 0.4 이하이며 측정오차를 다수 포함하여 제외되었고, PD2-2와 PI9는 2개 이상의 요인에서 교차적재로 나타나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PI10은 모든 요인에서 요인적재량이 0.4 이하로 제외되었다. 이 중 PI9, PI10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유대 요인으로 포함된 문항이었는데, 이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와 의존도를 묻는 문항이다. 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성공도서관이 직접적인 관계의 형성보다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느슨한 연결을 발생시키는 교량적 사회자본 발생 기관으로 더욱 유효하기 때문에(박성우, 2020; Aabø & Audunson, 2012)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PI는 탈락한 문항을 제외하고 PD1-2(꼭 '이 도서관'에서 독서나 대출을 하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가 장소정체성에 포함되었으며, 장소의존성은 방문의도와 무관하게 대체불가능성을 질의하는 PD1-3, PD2-3, PD3-3, PD4-3, PD5-3과 PD3-2(강의나 프로그램을 꼭 '이 도서관'에서 듣는 것이 나에게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가 별도의 문항으로 묶였다. 이는 강의나 프로그램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참여요건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요인이 종전 의도했던 대로 방문의도에 따라 나뉘지 않고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의 강도가 강한 대체불가능성, 일반적인 장소의존성 등 3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장소의존성을 방문의도별로 나누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형 적합도 측면에서 CMIN/df는 3.331, CFI는 0.771, TLI

는 0.748, RMSEA는 0.112 등 모형적합도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게 나타나, 방문의도에 따른 요인 구분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명확한 방문의도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장소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방문의도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1을 소명하기 위한 가설1의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가지의 요인인 장소의존성 대체불가능성(PD-sub)과 장소의존성 만족도(PD-sat), 장소정체성(PI)은 이후의 연구문제 소명을 위해 계속 활용할 것이다.

4.2 연구문제2: 유희공간의 과거적 경험과 공공도서관의 현재적 경험

4.2.1 가설2: 유희공간의 과거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

유희공간의 과거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 경험 및 인지 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을 조사문항별 및 요인별로 실시하였다. 이 중 신뢰수준 95%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유희공간의 과거적 경험 중 재활용 건축 인지 여부에 대한 검정 결과 장소의존성 문항 중 PD1-1(독서를 하거나 책을 빌리기에 이 도서관은 최적의 장소다)과 PD1-4(독서나 대출을 하기에 다른 곳보다 이 도서관이 더 좋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D1-1과 PD1-4 모두 유희공간 재활용 건축임을 인지한 경우가 독서나 대출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게

〈표 7〉 유희공간의 과거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 독립표본 T검정

집단유형	문항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p)
유희공간 재활용 건축 인지 여부	PD1-1	알고 있었다	138	4.47	0.594	2.794(0.006**)
		몰랐다	45	4.16	0.824	
	PD1-4	알고 있었다	138	4.21	0.768	2.305(0.022*)
		몰랐다	45	3.89	0.935	

* $p < 0.05$, ** $p < 0.01$, *** $p < 0.001$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장소에 대한 직·간접적 관심과 공공도서관에 기대되는 전통적 기능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해당 유희공간의 재활용 결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독서와 대출)을 기대하고 충족하거나, 혹은 반대로 공공도서관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공공도서관의 과거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것 등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박성우(2020)가 과거 공간에 대한 집합적 정체성이 현재의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고 이것이 공공도서관 이전의 유희공간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을 역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이 유희공간이기에 기대되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전통적 기능(독서 및 대출)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것은, 이 방문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공간이 새로워서가 아닌 그저 '도서관이기에' 방문했고 이러한 반복적 방문 과정에서 이곳이 폐교라는 역사성을 습득했다는 개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설2-1은 부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반면 이전 유희공간과의 관계 여부에서 유희공간과 관계있는 응답자가 18명(9.8%)으로 T

검정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제되는 소집단의 규모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응답 집단의 데이터 정규성 파악을 위해 관계있는 응답자 18명 집단의 데이터의 Shapiro-Wilk 분석 결과, 문항을 제외하고 3개 요인 표준화 데이터는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은 비모수 데이터의 집단 평균비교 방법이 맨 휘트니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4.2.2 가설3: 유희공간의 현재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

유희공간의 현재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 경험 및 인지 여부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조사문항별 및 요인별로 실시하였다. 이 중 신뢰수준 95%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도서관 방문빈도에 따른 장소의존도 문항은 PD3-1, PD3-2, PD3-4 등 강의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장소와 PD4-3 등 공부나 작업에 대한 불가능성에 관련된 문항에서 차이가 드러났고, 장소정체성 문항은 PI1, PI3 등 개인의 자아 형성에 관련된 문항과, PI8, PI9, PI12 등 도서관

<표 8> 유휴공간의 현재적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 일원배치 분산분석

집단 유형	문항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분석 (scheffe)
방문 빈도	PD3-1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4.25	0.730	4.71(0.01*)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85	0.919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85	0.834		
	PD3-2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94	0.966	4.749(0.01**)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41	1.061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70	1.132		
	PD3-3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23	1.272	3.545(0.031*)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2.69	1.175		
		③ 1년에 1~2회 이상	33	2.97	1.262		
	PD3-4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4.14	0.827	4.89(0.009**)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67	0.956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79	0.992		
	PD4-3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11	1.313	3.533(0.031*)	-
		② 1달에 1~2회 이상	85	2.64	1.233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18	1.261		
	PI1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4.15	0.870	3.293(0.039*)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79	0.888		
		③ 1년에 1~2회 이상	33	4.00	0.829		
	PI3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91	0.897	3.164(0.045*)	-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61	0.952		
		③ 1년에 1~2회 이상	33	4.03	0.951		
PI8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4.17	0.720	4.695(0.01*)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73	0.981			
	③ 1년에 1~2회 이상	33	4.03	0.951			
PI9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55	1.299	5.043(0.007**)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2.88	1.322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00	1.323			
PI12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4.12	0.927	3.564(0.03*)	-	
	② 1달에 1~2회 이상	85	3.72	1.019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70	1.075			
PD-sub	① 1주일에 1회 이상	65	3.29	1.061	3.503(0.032*)	① > ②	
	② 1달에 1~2회 이상	85	2.85	1.009			
	③ 1년에 1~2회 이상	33	3.23	1.093			
도서관 소재지와외 관계	PD2-3	① 관외 거주	50	2.76	1.098	5.068(0.034*)	③ > ①
		② 관내 거주	105	2.94	1.262		
		③ 소재지 거주	28	3.50	1.232		
	PD-sub	① 관외 거주	50	2.85	0.981	2.921(0.044*)	③ > ①
		② 관내 거주	105	3.08	1.098		
		③ 소재지 거주	28	3.45	0.962		

* $p < 0.05$, ** $p < 0.01$, *** $p < 0.001$

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단위에서는 장소의존성의 대체불가능성 요인인 PD-sub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PD4-3과 PI3, PII2는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된 모든 문항에서 도서관을 1주일에 1회 이상 자주 방문하는 집단이 1달에 1~2회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덜 방문하는 집단보다 장소의존성 및 장소정체성에서 높은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소의존성 측면에서 강의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중에서도 사회적 유대(Chen et al., 2019; Kyle et al., 2005)에서 도출된 장소정체성이 높았다. 강의나 프로그램의 특성 상 1주일 단위의 방문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잦은 방문이 방문의도에 따른 장소의존성과 사회적 만남의 경험을 반복하게 만듦으로써 장소감을 형성시킨다는 선행연구(Loh & Hamarian, 2026)의 내용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3-1은 부분채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소재지의 거주 여부에 따른 장소의존성 문항은 PD2-3(내가 다른 곳에서 대신 쉬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과 요인으로는 PD2-3이 포함된 장소의존성 대체불가능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해당 도서관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응답이 관외(소재 기초단체 외부)에 거주하는 이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사용하여 접근해야 하는 기초단체 외부 소재자들의 경우 이동성 및 접근성의 측면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그에 따라 도서관의 대체재를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소재지 이용자의 경우 이동성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대체불가능성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소감의 핵심 형성요인으로서 거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일상 루틴으로서의 경험을 제시한 선행연구(Loh & Hamarian, 2026)의 결과와 상응한다. 따라서 가설3-2 또한 부분채택할 수 있다.

4.3 가설검정 결과

가설검정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가설검정 결과

연구문제1.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이 복합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방문의도를 충족하는가?	
가설1. 방문의도에 따라 장소의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검정불가
연구문제2.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에 대한 과거적 경험과 현재적 경험이 장소애착을 증가시키는가?	
가설2. 기존 유휴공간과의 과거 경험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1. 기존 유휴공간의 인지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2. 기존 유휴공간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3. 현재 공공도서관의 경험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2. 공공도서관 소재지의 거주 여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1인 방문의도에 따른 장소의존성의 차이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방문의도별로 장소의존성의 개념이 다르다고 식별되지 않아, 가설 검정이 불가능하였다. 가설2인 기존 유희공간과의 과거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는 부분채택되었는데, 가설2-1에서는 독서 및 대출에 관련된 장소의존성 문항 일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설2-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 및 요인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설3인 현재 공공도서관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도 부분채택되었는데,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른 강의 및 프로그램 방문의도 중심의 장소의존성과 사회적 관계망 중심의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대체불가능성 요인에서 빈번한 방문자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소재지에서도 도서관 가까이 위치한 방문자의 장소의존성 대체불가능성을 높게 체감하였다.

5. 결론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재생하는 사회적 앵커로서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 정책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과정에서 유희공간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유희공간의 기존 공간프로그램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에 기대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소와 일대의 역사성 및 기억과 융합해 집합적 정체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러한 이론적 가치로 인해 관련 사례연구가 다각도로 축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누적된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 함양 효과를 장소애착 개념을 도입해 실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장소애착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인간이 의미화시키며 획득하는 강력한 소속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지역단위로 확장된 보편적 소속감인 집합적 정체성의 계량적 측정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장소애착 개념을 관찰도구로 도입하여, 유희공간 중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앵커였던 학교를 공공도서관으로 바꾼 선도적 도서관 브랜드인 경상남도교육청의 지혜의바다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소의존성 차이, 과거 유희공간 경험과 현재 공공도서관 경험에 따른 장소애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경험 다양화를 신경써야 한다. 독서 행위에서 확장된 시대적 요구와 유희공간의 고유한 구조의 시너지는 특정한 기능을 고착 및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단순한 형태로라도 이용자로 하여금 접하게 만드는 것이 유희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향후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장소의존성의 방문의도가 요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만큼 서로 같은 개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방증된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분기한 장소의존성 요인도 강도에 따라 일반적 만족도와 대체불가능성 요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체불가능성 요인의 경우 평균이 3.07로 4.05, 4.08에 준하는 다른 요인 대비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장소애착이 공공도서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이 아니라 복합적 경험에 의거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에만 기인하기보다, 현재의 이용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이 유휴공간 재활용 건축물임을 인지하는 이용자일수록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독서 및 대출)에 대한 장소의존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이 유휴공간의 장소성을 차용하여 보완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단순한 인지여부라도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에 대한 애착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기가 폐교여서(직접적으로 관계있어서)” 이 곳을 방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곳이 도서관이라서” 왔는데 이 곳이 폐교였다는 역사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애착을 형성하는 역산된 구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성에 때로 되어 방문한 이용자들이 공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해당 장소의 역사성까지 인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유휴공간의 역사성이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을 보완한다는 기존 연구(박성우, 2020)의 논의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행하는 일방향적 흐름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쌍방향적 메커니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집단 구분에 따른 평균 차이만 비교했을 뿐으로 선·후행구조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이러한 해석은 단지 후속연구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질적 접근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적 규명이 요구된다.

세 번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을 건

립할 때에는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위치시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장소애착 함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밀착성은 공공도서관 고유의 기능이라기보다 쉽고 휴식처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하여 대체불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도서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공공도서관의 대체불가능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므로,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경험 다각화와 기능 확대만큼이나 거리적 밀착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규모가 183명으로 적었으며, 중요한 집단변수였던 기존 유휴공간인 학교와의 관계 여부 문항에서 관련 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차후 후속연구에서는 분석에 주요한 집단변수를 고려하여 응답자를 선별하거나 질적연구로 전환하여 기존 유휴공간 경험의 여부가 현재의 공공도서관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 중 특정한 도서관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폐교 활용 공공도서관 중 가장 선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는 지혜의바다도서관을 사례로 하였기 때문에, 지혜의바다도서관이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사례적 측면에서만 제시되었던 유휴공간 재활용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에 관련한 메커니즘을 장소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하여 계량적으로 소명하고자 시도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 김소연, 임호균 (2025). 복합화 공공도서관 방문목적에 따른 사용자 군집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7), 3-12. <https://doi.org/10.5659/JAIK.2025.41.7.3>
-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21(1), 107-152.
- 김현주, 이상호 (2011). 유희공간 재활용 계획에 나타나는 도시재생개념의 영향 분석: 기존 연구에 등장하는 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06), 103-112.
- 노영희, 노지윤 (2018).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4), 77-106. <http://doi.org/10.3743/KOSIM.2018.35.4.077>
- 노영희, 노지윤 (2019a).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폐교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57-176. <http://doi.org/10.16981/kliss.50.1.201903.157>
- 노영희, 노지윤 (2019b). 폐교 부지 및 건축물을 이용한 도서관의 대피시설로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65-89.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065>
- 단성훈, 최유중 (2017). 방치된 근대문화유산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한 복합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용산철도병원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술논문집*, 36(2), 43-50.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5. 29.)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http://doi.org/10.16981/kliss.45.1.201403.197>
- 박성우 (2020).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고찰: 유희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33-157. <http://doi.org/10.16981/kliss.51.2.202006.133>
- 박효란, 임호균 (2022).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유희시설 활용 공공도서관 특성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80, 51-60.
- 양재영, 김동훈 (2016).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한 공공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구 제주대학병원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1), 151-154.
- 이석환, 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 이정호 (2012).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253-278.
- 최유진, 차미경 (2019).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21-143.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1.121>

- 홍소람, 박성우 (2025). 공공도서관 장소성 형성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서비스스케이프 요인의 구성 타당도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2(3), 1-33. <http://doi.org/10.3743/KOSIM.2025.42.3.001>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 138-149. <https://doi.org/10.1016/j.lisr.2011.06.002>
- Brunvand, A. (2020). Re-Localizing the library: considerations for the anthropocene.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1), 1-25. <https://doi.org/10.24242/jclis.v3i1.94>
- Chen, N., Hall, C. M., Yu, K., & Qian, C. (2019). Environmental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the cases of long-term residents in rural and urban areas in China. *Sustainability*, 11(22), 6439. <https://doi.org/10.3390/su11226439>
- Clopton, A. W. & Finch, B. L. (2011). Re-conceptualizing social anchors in community development: utilizing social anchor theory to create social capital's third dimension. *Community Development*, 42(1), 70-83. <https://doi.org/10.1080/15575330.2010.505293>
- Dragicevic, N. (2015). *Anchor Institutions*. Toronto: Mowat Centre.
- Harris, M. & Holley, K. (2016). Universities as anchor institutions: economic and social potential for urban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393-439.
- Hernández, B., Hidalgo, M. C., & Ruiz, C. (202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research on place attachment. In Lynne, M. ed., *Place Attachment: Advances in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94-110.
- Huang, Y., Chen, N., & Hall, C. M. (2024). A child play-and-learn area contributing to urban regeneration: A case in Christchurch, New Zealand. *New Zealand Geographer*, 80(1), 44-58.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2014). 도시재생 소개 > 도시재생이란?
출처: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1/link.do>
- Hwang, S. W. & Oh, H. (2025). Small-scale communal libraries in urban void spaces: assessing multiple strategies for sustainable social infrastructure. *Local Environment*, 30(10), 1327-1348. <https://doi.org/10.1080/13549839.2025.2471004>
- Kyle, G., Grae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https://doi.org/10.1177/0013916504269654>
- Lee, P. (2025). Place-Making in public libraries: integrating local history, information, and learning. *Public Library Quarterly*, 1-25. <https://doi.org/10.1080/01616846.2025.2492907>

- Lehmann, S. (2024). Reimagining the library of the future: from social condenser and community hub to regenerative design. *Public Library Quarterly*, 43(2), 223-259.
<https://doi.org/10.1080/01616846.2023.2242626>
- Loh, C. E. & Hamarian, T. (2026). A sense of place in public libraries: a Singapore case. *IFLA Journal*, Online First. <https://doi.org/10.1177/03400352261448772>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Raymond, C. M., Brown, G., & Weber, D. (2010).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personal, community, and environmental connec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22-434. <https://doi.org/10.1016/j.jenvp.2010.08.002>
- Skot-Hansen, D., Hvenegaard Rasmussen, C., & Jochumsen, H. (2013).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New library world*, 114(1-2), 7-19.
<https://doi.org/10.1108/03074801311291929>
- Vårheim, A. (2009). Public libraries: Places creating social capital? *Library Hi Tech*, 27(3), 372-381. <https://doi.org/10.1108/07378830910988504>
-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October).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In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https://doi.org/10.1093/forestscience/49.6.83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ujin & Cha, Mikyeong (2019). A study on the elderly people's value system of the public library use: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21-143.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1.121>
- Dan, Sung-Hoon & Choi, Yu-Jong (2017). The complex library planning using of modern cultural heritage: focus on the Yongsan railway hospita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36(2), 43-50.
- Hong, Soram & Park, Seongwoo (2025). Construct validity analysis of physical and social

- servicescape factors for placeness 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3), 1-33.
<http://doi.org/10.3743/KOSIM.2025.42.3.001>
- HUG Urban Regeneration Support Organization (2014). Introduction to Urban Regeneration > What is Urban Regeneration? Available: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1/link.do>
- Kim, Hyunju & Lee, Sangho (2011).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concept revealed at the renovation plans of under-used spaces: focused on the plans appeared at the former research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06), 103-112.
- Kim, So-Yeon & Lim, Ho-Kyun (2025). A study on user clustering according to public library usage behavior.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1(7), 3-12.
<https://doi.org/10.5659/JAIK.2025.41.7.3>
- Kim, Yongchang (2011). New urban development paradigm and construction of development strategies for sharing growth benefits. *Space and Environment*, 21(1), 107-152.
- Lee, Jeong-Ho (201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253-278.
- Lee, Seokhwan & Hwang, Giwon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2(5), 169-184.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5. 29.) The 4th Master Plan for Library Development (2024~2028).
- Noh, Younghee & Ro, Ji-Yoon (201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4), 77-106.
<http://doi.org/10.3743/KOSIM.2018.35.4.077>
- Noh, Younghee & Ro, Ji-Yoon (2019a). A study on improved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in the libra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losed area: based on the analysis of area where closed school occurs through the socioeconomic index.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57-176. <http://doi.org/10.16981/kliss.50.1.201903.157>
- Noh, Younghee & Ro, Ji-Yoon (2019b). A study on utilizing the site and building of closed school as evacuation facilities for th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65-89.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065>
- Park, Hyoran & Lim, Hokyun (202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using idle facilities space to realize spat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 Architecture, 80, 51-60.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Jeonnam-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http://doi.org/10.16981/kliss.45.1.201403.197>
- Park, Seongwoo (2020). Public libraries as a social anchor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a case study of constructing public libraries through renovating under-used spa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33-157. <http://doi.org/10.16981/kliss.51.2.202006.133>
- Yang, Jae-Young & Kim, Dong-Hoon (2016). A study on public library plans in the old downtown to introduce an urban regeneration scheme: orienter towards the Jeju old university hospital remodeling in the old Jeju downtown.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pring Conference*, 36(1), 151-154.

